

[보도자료]

한국오가는-한국약학대학생연합(KNAPS) 헬시 에이징 협력 및 보건의료 미래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초저출생·초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헬시 에이징 공동 캠페인 추진 및 사회적 인식 확산
-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무 개발·역량 강화 협력 확대 예정

서울, 2025년 3월 13일 – 한국오가는(대표 김소은)은 지난 12일 한국약학대학생연합(이하 KNAPS, 회장 김수민)과 초저출생·초고령화 시대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헬시 에이징(Healthy Aging)’ 및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헬시 에이징’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신체적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활력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헬시 에이징을 실현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헬시 에이징과 생애주기별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참여를 촉진하는 캠페인 등 공동 사업 기획 및 운영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직무 개발과 역량 강화 기회 확대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오가는 김소은 대표는 “이번 한국약학대학생연합과의 협약을 통해 한국오가는의 자원과 학생들의 뛰어난 재능이 모여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보건의료 인재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NAPS 김수민 회장은 “약학대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며, “헬시 에이징이라는 의미 있는 목표를 한국오가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미래 보건의료 인재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오가는는 지난해 5월 사단법인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협약을 맺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확대를 지원하고,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한성협)와 2022년부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문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약학대학생연합(KNAPS)은 2007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35개 약학대학의 졸업생과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약학대학생연맹의 한국 대표 멤버로서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며, 학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전문 교육을 통해 약학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오가논과 한국약학대학생연합은 헬시 에이징 및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